

기관돋보기 | 괴산군노인복지관

어르신 행복증진에 앞장서는 노인복지 중심 기관

괴산군노인복지관은 괴산군에서 유일한 노인 복지 거점기관으로, 지역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년을 누릴 수 있도록 평생교육과 사회참여를 포함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루 평균 500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건강·문화·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지역사회와 공동체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노(老)랑원두' 카페와 '전통 한지 수의 제작 웰다잉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에게 기술과 경험을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고, 세대 간 교류와 삶의 의미 성찰을 돕는 특화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치매 예방, 정서 지원, 주거안전 개선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일상 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보건복지부 주관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꾸준히 A등급 이상을 유지하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농촌형 커뮤니티케어 활성화와 통합적 돌봄 실현을 통해 어르신 중심의 지속 가능한 복지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편집자주)

괴산군노인복지관(관장 황지연)은 하루 평균 500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프로그램과 식사를 위해 찾는 지역사회 밀착형 공간으로, 단순한 복지 제공을 넘어 활기찬 일상과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약 7800여 명의 회원을 기반으로 맞춤형 건강, 문화,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내 대학, 기관, 봉사단체와 협력해 교육·정서 지원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지역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세대 간 교류와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며,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사회적 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복지관 운영에는 35개 봉사단체와 350여 명의 봉사자들이 정기적으로 경로식당 배식, 프로그램 보조, 행사 지원 등에 참여하며 운영을 뒷받침 하고 있다.

또한 287개 마을에 배치된 돌봄 매



괴산군노인복지관 전경.

지역자원 연계 맞춤형 돌봄·건강·문화·여가 프로그램 제공 '노(老)랑원두' 카페·'전통한지 웰다잉 프로그램' 행복 증진

니저와 '뚝뚝마을돌봄 봉사단' 126명은 각 마을에서 최소 1명의 어르신 돌봄을 맡아 지역 맞춤형 케어를 제공하고 있으며, 30여 개 후원 기업과 200여 명의 개인 후원자도 복지관 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민·관·지역의 협력은 복지관이 단순한 시설을 넘어 세대를 아우르는 사회적 공간으로 기능하게 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특히, 특화사업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노(老)랑원두' 카페다. 괴산군지역 활성화센터와 협력해 운영되는 이 사업은 어르신들을 단순 수혜자가 아닌 기술과 경험을 갖춘 전문봉사자로 육성하는 모델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에는 이론 교육과 실습을 통해 기초 역량을 다졌고, 올해는 상·하반기 과정으로 확대해 핸드드립, 로스팅, 블렌딩 등을 집중 교육했다. 또, 어버이날에는 직접 로스팅한 원두로 만든 드립백 1000개를 나눔·시음 행사

로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재 복지관 1층에 '노(老)랑원두 카페'를 열어 어르신들이 직접 운영에 참여해 일자리와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있으며, 참여 어르신 13명 전원이 로스터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도 기록했다.

복지관은 문화·정서지원 사업도 활발하다. 괴산군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하는 상실 극복 프로그램 '마음을 그리다'는 상실 경험을 공유하는 자조모임으로 어르신들의 정서적 회복과 사회적 유대 강화에 기여한다.

또한, 중원대학교의 '뇌 나이가 어때서', 한국교통대학교의 '맑은 뇌 친구' 등 대학과의 협력으로 운영되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도 어르신 맞춤형 교육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돌봄 영역에서는 농촌 특성을 고려한 '평생돌봄 뚝!뚝!뚝!' 사업을 통해 206가구에 안전주거 개선을 지원했다. 장기 입·퇴원 환자에게는 식재료와

긴급 물품을 제공해 지역사회 복귀를 돕고, 저작 기능이 약화된 어르신에게는 고단백 건강 음료를 제공하는 등 생활 전반의 안전과 건강을 챙기고 있다.

아울러, 2025년 보건복지부 민간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우리나라 전통 한지 수의 제작을 통한 농촌노인 및 가족 웰다잉 프로그램'을 통해 조업한 삶의 마무리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연풍한지박물관과 협력해 전통 수의 제작을 지원하고, '내 삶 돌아보기', 영상자서전 촬영 등을 통해 어르신과 가족이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안한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복지의 범위를 확장해 삶과 죽음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황지연 관장은 "괴산군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약 41.4%를 차지하지만, 관내 노인복지관은 한 곳뿐이고 시설과 공간이 협소해 늘어나는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 어렵다"며 "충북 내 다섯 번째로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농촌 지역 특성상 면 단위로 광범위하게 분포해 많은 어르신이 복지관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을콜버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자차 이용 등이 있지만, 고령 운전자의 안전 문제와 주차난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농촌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무료 셔틀버스 운행 등 교통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괴산군노인복지관은 어르신 행복 증진을 선도하는 지역 노인복지의 중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농촌형 커뮤니티케어를 활성화해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돌봄 공동체를 조성하고, 생애주기별 전인적 지원으로 어르신의 건강, 여가, 사회참여까지 아우르며 모두가 함께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계획이다.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는 7일 청주 중앙공원에서 '2025년 사랑의 점심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어르신 700명에 사랑의 점심

연합봉사단·봉우회와 함께... 무료급식, 이·미용 봉사 등 진행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응모)는 7일 청주 중앙공원에서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연합봉사단(회장 심재훈, 소속 나우리회·스마일봉사단)과 나눔의 인연 봉우회(회장 유영천)와 함께 '2025년 사랑의 점심 나누기' 행사를 열고, 약 7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사했다.

'사랑의 점심 나누기' 행사는 2004년부터 이어져 온 나눔 실천 행사로, 매년 지역 어르신을 위해 무료급식과 어버이날 위문공연, 이·미용 봉사활동 등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행사는 명절을 앞두고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온정을 나누기 위해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연합봉사단, 나눔의 인연 봉우회 등 자원봉사자 60여 명이 참여해 식사 제공, 이·미용 서비스, 위

문공연 등을 진행했다. 더불어, 청주의료원의 후원으로 의료상담 부스를 운영해 건강상태 점검과 상담을 지원하며 보건의로 사각지대 해소에 힘을 보탰다.

특히, 이날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현장을 찾아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는 등 자원봉사 일선 현장을 살피기도 했다.

행사를 주최한 유응모 회장은 "매년 나눔 활동에 함께해 주시는 연합봉사단에 감사드리고, 지역사회에 온기를 더하는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재훈 회장은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봉사활동은 지역 이웃 및 봉사자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이웃 사랑 실천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충청북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슬로건이 적힌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청북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개소식 열려

근무 여건 개선·업무 지원으로 돌봄 서비스 질 향상 기대

충북도는 10일 어르신 돌봄 종사자와 장기요양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87)가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식에는 장기요양기관 관계자 및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도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등 도내 3만 2000여 명의 장기요양요원을 위한 교육·상담·복지 지원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센터는 근무 여건 개선, 업무 소진으로 인한 역량

강화 등의 지원을 함으로써, 노년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장기요양요원 교육 및 역량 강화, 권의 보호 지원, 취업정보 제공, 휴식 공간 및 복지상담 프로그램 운영,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맞춤형 지원사업, 돌봄 종사자 권의 증진 활동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충청북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어르신과 장기요양요원이 함께 행복한 충북'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괴산군노인복지관 직원 단체사진.



노년사회화교육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고추축제에서 열광공연을 펼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가정위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위탁부모가 되어주세요"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하는 제도 (아동복지법 제3조)

위탁부모가 되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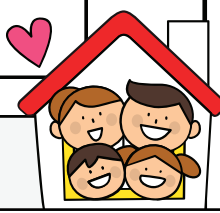
- 1) 아동에 대한 **애정과 사랑**
- 2) **25세 이상**, 아동과 **나이차 60세 미만**
- 3) 범죄전력 및 정신질환 **NO**
- 4) 친자녀수 **4명 이하**
- 5) 예비위탁부모교육 **5시간 이상**

위탁부모 신청 절차는?

- 1) 가정위탁 신청 및 접수
↓
- 2) 예비위탁 부모교육 수료
↓
- 3) 예비위탁가정 상담 및 방문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 043-250-1226



괴산군, 복지 허브 ‘공감누리센터’ 개관

괴산군사회복지협의회 · 괴산지역자활센터 입주

괴산군은 11일 송인현 군수, 지역 인사,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괴산을 동부리 일원에 조성한 ‘괴산공감누리센터’ 개관식을 열었다.

총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681.05㎡,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한 이 센터에는 괴산군사회복지협의회, 괴산지역자활센터가 함께 입주했다.

이에 군민들은 한 공간에서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괴산군사회복지협의회는 푸드뱅크 · 푸드마켓 운영,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괴산지역자활센터는 지역 저소득층 대상 일자리 제공, 자활 지원 등 안정적인 자립 기반 마련에 집중한다.

송인현 군수는 “이 센터가 미래를 열어가는 복지의 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복지 공동체 실현에 최선을 다도 군민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하겠다”고 말했다.



괴산군은 ‘공감누리센터’ 개관식 개최 후 관계자들과 함께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하고 있다.

보은군, 청년 친화 공간 ‘청년마을 공유주거’ 연내 조성

11월 완공 목표… 맞춤형 생활공간 조성 등

보은군은 지난 10일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지역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청년마을 공유주거’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군은 회인면 중앙리 일원에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 청년마을을 공유주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1월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5402㎡ 부지에 소형 주택 6동과 커뮤니티센터 1개소,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착공해 현재 공사 가 한창이다. 공유주거는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청년들의 생활 패턴을 반영한 맞춤형 공간으로 꾸며지며, 특히 커뮤니티센터는 청년들의 교류와 공동체 활동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군은 완공 후 가구와 편의시설을 보강하고, 다양한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해 입주 청년들이 지역과 자연스럽게 어울

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입주 청년들에게는 지역 특산물과 전통문화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창업 및 문화 활동과도 연계해 ‘살기 좋고, 머물고 싶은 보은’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공유주거 단지가 들어서는 회인면은 청년단체 ‘젊은 동네’의 ‘라이더타운 회인호이’ 사업으로 이미 활기를 띠고 있다. 휠리스 페스티벌 등 다양한 청년 문화 · 관광 콘텐츠가 활발히 운영 중이며, 청년 창업 거점으로도 자리 잡고 있다.

보은군은 최근 행정안전부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 공모에도 선정돼 6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라이더 휴식 공간 확충과 라이딩 코스 개발 등 청년 친화적인 지역으로 더욱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재형 군수는 “청년마을 공유주거 단지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뿐 아니라 창업과 문화 활동까지 연결하는 새로운 거점이 될 것”이라며 “로컬브랜딩 사업과 연계해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영동군, 의료비 후불제 발전 유공 도지사 표창

주민 의료 접근성 강화 · 제도 확산 공로 인정
“군민 체감되는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어갈 것”

영동군보건소(소장 조숙영)가 18일 충북도에서 추진 중인 의료비 후불제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확대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충청북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의료비 후불제는 치료비 부담으로 적기에 진료받기 어려운 주민들이 일정 기간 뒤에 의료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에 큰 의미가 있다.

영동군보건소는 관내 영동병원, 조은안과, 치과의원 등 10개소 지역 의료기관이 제도에 참여하도록 적극 유도해 주민들이 더 손쉽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의료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제도 안내 책자를 배포하고, 보건소 방문객과 지역 행사장을 통해 홍보활동을 지속해 군민들의 제도 인식을 높였다.

이 제도를 통해 군민들은 의료비 지출 부담을 줄이면서도 필요한 시기에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지역 내 의료 접근성도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의료비 후불제 덕분에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줄어드는 등 실질적인 건강 증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군보건소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차원을 넘어 전국적 확산을 위해 지



조숙영(왼쪽) 영동보건소장이 의료비 후불제 확산 공로로 충청북도지사 표창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속적으로 개선 필요성을 건의해 온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숙영 소장은 “이번 표창은 보건소와 지역 의료기관, 주민들이 함께 만든 성과”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 의료 서비스를 강화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옥천군, ‘우유배달 안부살핌’으로 고독사 예방

사단법인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과 협약 체결

옥천군은 지난달 28일 홀로 사는 주민들의 안전을 살피기 위해 우유배달을 활용한 고독사 예방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사단법인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이사장 호용한)과 업무협약을 맺고, 옥천을 내 위기가구 307가구에 매일우유와 연계한 우유를 매일 전달하기로 했다.

특히 배달원은 문 앞에 우유가 수거되지 않거나 거주자의 기척이 없을 경우 즉시 군에 알리는 생활 속 지킴이 역할을 맡는다. 군은 대상

자 발굴과 행정적 지원을, 사단법인인 배달을 통한 안부 확인을 담당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황규철 군수는 “홀로 사는 주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쓰러져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까 하는 외로움”이라며 “이번 사업이 이웃의 안부를 살피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용한 이사장도 “우유가 단순한 배달품이 아니라 생명과 마음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며 “지



옥천군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우유배달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역사회와 힘을 모아 한 사람의 삶이라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옥천군, 유일 종합병원 원외처방 첫날 ‘시끌’

약국 생겨 ‘의약분업 예외지역’ 취소… 환자 불편 호소

옥천군은 지역 내 유일한 종합병원인 옥천성모병원의 원외처방을 두고 환자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는 지난 15일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을 들고 약국까지 가는 길이 너무 험난하다’고 호소하는 건의문을 옥천군에 제출했다.

노인회가 건의문을 낸 이날은 옥천성모병원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제외되면서 원내처방이 금지된 첫날이다.

시가지 외곽에 자리 잡은 이 병원은 가까운 곳에 약국이 없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어서 그동안 원내처방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 6월 병원 바로 옆에 약국이 들어서면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제외됐고 석 달간의 행정

예고를 거쳐 원내처방을 금지했다. 하지만 고령자나 이동이 불편한 환자는 원외 약국까지 가는 길이 쉽지 않다는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유동빈 지회장은 건의문을 통해 “성모병원에서 처방전을 받고 나서 최근 문을 연 약국까지 이동하려면 병원 현관과 주차장, 인도 · 차도 구분없는 내리막길, 엘리베이터 등을 거쳐가는 불편과 위험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휠체어를 탄 환자와 노약자는 사고 위험에 노출돼 큰 문제”라면서 “종전처럼 성모병원 내부에서 약을 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신설약국과 성모병원 주차장 사이에 안전통행로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했다.

옥천군 보건소는 환자 불편을 잘



옥천성모병원 전경.

알지만 관련 법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반경 1km 안에 약국이 없을 때만 가능한데, 신설 약국은 병원 경계로부터 수 십m에 불과한 위치”라며 “병원 부지 안에 별도의 통행로를 내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원이 이어지는 만큼 보건복지부에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등을 질의하고 환자 안전을 위한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증평군, 돌봄도시 실현 ‘아이돌보미’ 신규 모집

오는 10월 31일까지 접수… 급여 시간당 1만 590원

증평군은 지난 15일 아동 복지향상과 보호자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아이돌보미’ 신규 인력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보미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직접 방문해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와 돌봄을 담당하는 돌봄 전문가로 현재 증평군에서는 31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 중이다.

군은 이번 모집을 통해 양육공백 가정에 일시적 · 정기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유능하고 성실한

돌보미 인력을 확보해 맞춤형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증평군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아이돌봄 인력 양성과정 수료증 또는 보육교사 · 유아교사 · 의료인 등 관련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 1년 이상 활동이 가능하며 공휴일 · 야간 · 주말 등 유연한 근무가 가능한 지원자를 우대한다. 근무형태는 파견직으로, 지역 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서 활동하게 된다.

급여는 평일 기준 시간당 1만 590원으로, 주휴 · 야간 · 휴일 ·

연장 근로 등 법정수당이 별도 지급된다.

신청은 기간 내 아이돌보미 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 · 인적성검사 · 면접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12일 최종 합격자가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증평군아이돌봄센터(☎043-836-0497)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 한부모 · 양육공백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아동 돌봄에 관심과 역량을 갖춘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SSN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게재 개월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지면	규격	배색	금액(원)
1면	4단 (360mm x 138mm)	컬러	300,000
	제호 옆 돌출 (67mm x 33mm) (3개월)	컬러	100,000
2면 ~ 7면	4단 (360mm x 138mm)	흑백	200,000
8면	4단 (360mm x 138mm)	컬러	250,000
	세로포스터 (150mm x 195mm)		

충청북도사회복지신문

광고 게재 안내

충청북도사회복지신문은 사회복지기관 및 관련단체, 시민단체, 병원, 학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일반시민 등 전국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이슈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싶은 분은 적극적으로 충청북도사회복지신문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김세나 사회복지사 (T.043-234-084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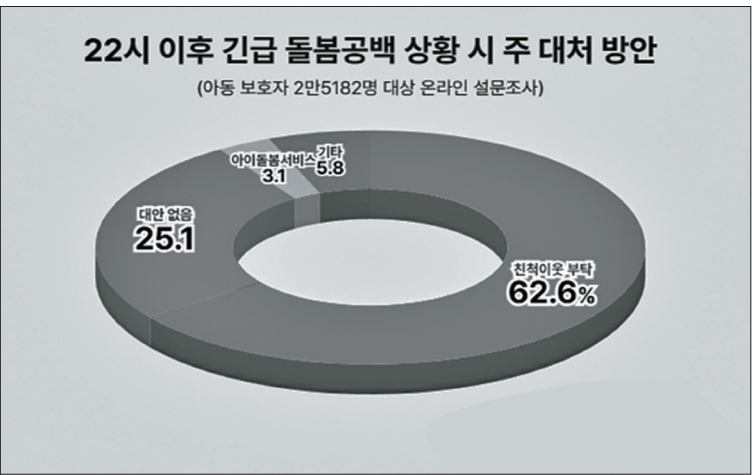
“야간 긴급상황 대비 공적돌봄 필요”

복지부, 연장돌봄 이용수요 조사

돌봄센터 이용 부모 '64% 응답'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달 25일 '초등 방과 후 마을 돌봄시설 20시 이후 연장돌봄 이용수요에 대한 설문조사(이하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수요조사는 지난 7월 발표한 '부산 아파트 화재 아동사망 사건 대응 관계부처 대책'의 일환으로 초등 야간·심야 연장돌봄 정책수립 관련 사전 수요파악을 위해 실시됐다.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열흘간 전국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 중인 부모 대상으로 온라인(URL/QR)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만 5182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조사 결과, 돌봄 공백은 16~19시 쏠림 후 20시 이후부

터는 급격히 낮아졌지만, 응답자의 3분의 2는(1만 6214명 응답, 64.4%) 야간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아동을 맡길 수 있는 공적서비스 체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재는 긴급상황 발생 때 주로 '친척·이웃 부탁'에 가장 많이 의존한다고 응답했고, '별도 계획 없음' 응답도 4분의 1에(6328명 응답, 25.1%) 달했다. 야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선호하는 방식으로는 22시까지 센터 연장돌봄을 가장 선호하였고(41.7%), 이어 재가방문(아이돌봄서비스) 28%, 친척·이웃 돌봄 강화 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부모들은 20시



출처: 데이터숨

이후까지 상시로 초등 아이들을 맡기는 것을 선호하지는 않지만, 야간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20시 이후 언제든지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서비스 체계에 대한 욕구는 높았다. 다만, 이 경우 밤 12시 전 귀가 또는 재가방문서비스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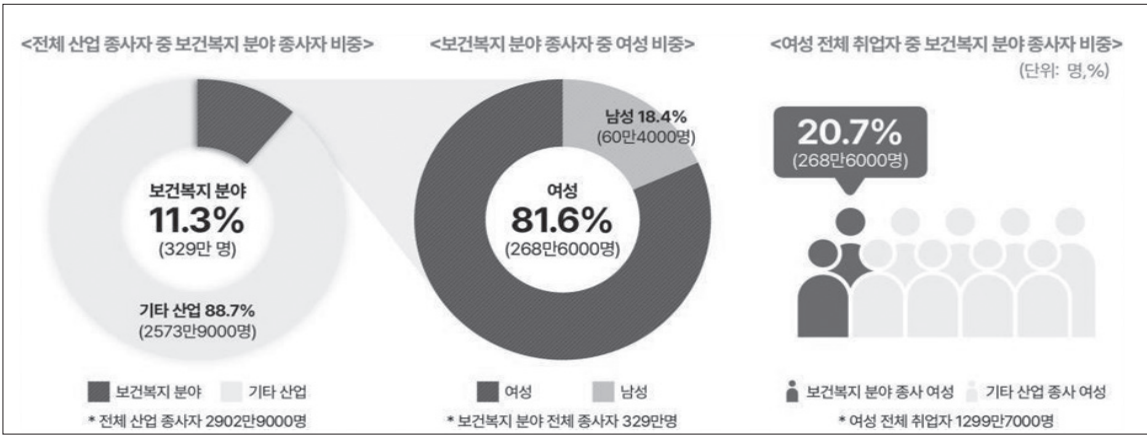
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발표 준비 중인 '부산 아파트 화재 아동사망 사건 대응 범정부 종합대책'에 따라, 전국 마을돌봄시설 연우 밤 12시 전 귀가 또는 재가방문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 성희롱·성폭력 상담체계 강화

상담 교육자료 제공

부처 간 협력 강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8일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체계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밝혔다.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는 약 329만 명으로 전체 산업 종사자의 11.3%를 차지하며 그중 여성이 81.6%를 차지한다. 여성 전체 취업자 중에서 보면 20.7%가 보건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 분야는 소규모 기관 또는 사업장이면서 폐쇄적 근무 환경인 경우가 많고, 각종 재활 치료, 방문형 돌봄, 재가요양 및 사회서비스 등 보건복지 분야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종



출처: 보건복지부

사자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겪더라도 참고 넘기는 것을 당연시하는 인식이 퍼져 있는 등 타 산업 종사자와 다른 점이 많다. 이에 복지부는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을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심층상담서비스, 여성폭력 상담을 제공하던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1366과 협력을 강화했다. 이에 상담사들이 보건복지 분야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좀 더 수월하게 보건복지 종사자 성희롱·성폭력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올해 9월부터 복지부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담사 교육에 활용하도록 부처 간 협력 상담을 제공하던 여성가족부

복지부는 올해의 사회복지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시작으로 앞으로 보건 의료, 장기요양, 사회서비스 등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상담을 위한 상담사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속 제공할 계획이며, 추가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도 발굴 해나갈 예정이다.

10월부터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시행

국민연금공단 위탁 운영... 지역센터 운영은 장애인개발원서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가 다음 달부터 본격 실시되어, 관련 업무는 국민연금공

단이 위탁운영하고,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업무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맡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1일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설

치하는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본사업 시행에 따라 내년도 지원 인력을 450명으로 올해보다 약 3배 확대해 정부안을 편성했다. 발달장애인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와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은 10월 2일과 내년 4월 2일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 개시

10월 31일까지 국민 90%에 1인 10만원씩 지급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경과와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1차는 7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2차는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이달 22일부터 국민의 90%에 대해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온라인 조회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앱

(The건강보험)에서 가능하며, 카드 연계 은행영업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에 직접 방문하여 조회할 수도 있다. 아울러,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접속장애 방지 등을 위해 개시 첫 주(9.22.~9.26.)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하여 신청을 받는다. 1차 신청과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다. 단, 주민등록표에 세대주 지위

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기재되는 등의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한다. 특히, 1차 지급 시 이미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선제적으로 방문·접수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1·2차 모두 11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137조 6480억원’

올해보다 9.7% 증가... 4년 연속 100조원 돌파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37조 6480억원으로 올해 예산 125조 4909억원 대비 9.7% 증가했다. 복지부 예산은 해마다 증가해 2023년 109조 1830억원으로 처음 100조원을 넘겼다. 이후 2024년(122조 3779억원)과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4년 연속 100조원대 예산으로 짜일 것으로 보인다. 2026년도 복지부 예산안은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투자 확대, 인공지능(AI) 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했다. 첫째, 저소득층 빈곤 완화를 위한 생계·의료급여 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노인·장애인 등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둘째,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9세 미만으로 1세 상향하며, 노인일

자리 확대·기초연금 인상으로 노인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셋째, 지역 의료격차를 줄이고, 필수요료를 확충하며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역모자요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을 강화한다. 넷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진료지원 간호사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다섯째, 인공지능(AI) 활용과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 투자 하요 복지·돌봄 및 의료 현장에서 AI 활용을 촉진하고, 신속한 상용화를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R&D 투자를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임상3상 특화 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독거 20대 청년, 생계급여 별도 지급 시범 운영

강원·대구·인천·전남 4곳서 6개월간 시행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5일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속한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해당 청년을 부모와 별도 가구로 보아 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모의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4월부터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빈곤 청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구용역(4월~12월)을 추진 중으로 개선 방안에 대한 평가 및 효과 검증 등을 위해 이번 모의적용을 6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로 실시하고, 이 경우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더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하고 있다. 즉 분가한 자녀를 포함한 모든 가구원의 급여가 부모 1인(가구주)에게 지급되고 있어, 부모가 생활비를 송금하지 않아 외지의 자녀가 생활고를 겪는 등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 개선 및 모의적용 연구(이하 모의적용)'를 통해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주

거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 자녀의 신청을 거쳐 생계급여액을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일부 수급 청년들의 최저생활이 보장받지 못한 문제 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슬란 제1차관은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생계의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번 모의적용을 통해 지자체 현장에서 청년 가구 분리 방안을 적용해 보고 그 결과를 통해 청년 빈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지역사회봉사단이란?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위촉기준

vms 가입되어 있으며,
2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한 단체

봉사단 혜택

활동재료 지원
자원봉사활동 시간(vms) 인정·관리
봉사활동 연계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복지정보과 박민정 코디네이터 전화) 043-234-0840

밀알복지재단, 충북 1호 ‘굿월스토어’ 오픈

기증품 판매 수익 창출... 장애인 안정적 일자리 제공
“지역 자원 재순환 거점, ESG 플랫폼 자리매김 기대”

밀알복지재단(이사장 홍정길)은 12일 충북지역 첫 ‘굿월스토어 밀알청주상당점’을 개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열린 개점식에는 밀알복지재단 한상욱 굿월부부장, 우리금융미래재단 장광익 사무국장, 우리은행 청주금융센터 이왕재 센터장, 청주복지재단 최은희 상임이사, GIK 유영균 대표, 밀알청주상당점 김승배 원장 등이 참석해 개점을 축하했다.

굿월스토어는 시민이나 기업으로부터 중고 물건이나 새 상품을 기증받아 판매한 수익으로 장애인 고용을 하는 기증품 판매 매장이다. 굿월스토어 밀알청주상

당점은 총 6명의 장애인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이들은 기증품을 분류하고 매장에 진열, 판매하는 등의 일을 맡았다. 굿월스토어 밀알청주점은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 지역 내 장애인식 개선을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 문화 확산에 앞장설 예정이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30에 위치한 굿월스토어 밀알청주상당점은 1층 기증품 판매장, 2층 기증품 작업장을 더해 총 440평에 달하는 대형 규모를 갖췄다. 1층 기증품 판매장에는 장애인 바리스타가 상주하는 ‘밀알카페’를 함께 운영, 단순 기증품 판



밀알복지재단은 지난 11일 ‘굿월스토어 밀알청주상당점’ 개점식을 개최했다.

매장을 넘어 지역민이 함께하는 열린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밀알복지재단 한상욱 굿월부장은 “충북지역 최초의 굿월스토어로서 밀알청주상당점이 충북지역의 지역 자원 재순환의 핵심 거

점이자 나눔과 일자리를 연결하는 허브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굿월스토어는 충북과 함께 성장하며, 모두가 쉽게 환경보호와 나눔에 참여할 수 있는 ESG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단양장애인복지관에 조성된 스크린 파크골프 시설을 김문군 군수 등이 방문하여 살펴보고 있다.

단양장애인복지관, ‘가상현실·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

장애인 맞춤 여가활동 지원

단양장애인복지관(관장 김경섭)은 지난달 25일 복지관에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상현실(VR실), 스크린 파크골프,

심리 안정실을 마련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문군 단양군수, 이상훈 단양군의장, 오영탁 충북도의원, 천태종복지재단 사무총장 자문스님, 복지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으며, 시설들은 장애인들의 여가 활동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맞춤형 공간으로 조성됐다.

먼저 가상현실(VR실)은 실제 숲속에 들어간 듯이 생생한 VR

환경을 통해 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다. 또 VR을 활용한 스포츠콘텐츠(가상양궁, 야구) 등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운동재활 프로그램이다.

스크린 파크골프 시설은 실내에서 사계절 안전하게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는 시설로 고령·지체 장애인분들의 근력과 균형 감각을 키워주고 함께 어울리고 교류하는 장이 될 수 있다.

심리 안정실은 따뜻한 조명과 편안한 음악, 심리안정 장비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회복하는 공간이다.

김경섭 관장은 “최신 시설 도입으로 장애인들이 폭넓은 여가 활동을 즐기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시의회에서 11일 열린 충북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식자재협의회 발대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식자재협의회 출범

생산물 소비 확대 · 고용 창출

충북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식자재협의회(회장 이상직)는 11일 공식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

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 출범은 청주시 공공급식센터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안정적으로 납품함으로써,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보장은 물론, 보호작업장 생산성 향상과 운영 안정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충북 도내 직업

재활시설 관계자들과 남일현 청주시의원, 변은영 청주시의원, 청주시청농식품유통과, 청주시청장애인재활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해 협의회 출범을 축하하고, 장애인 생산물 소비 확대와 고용 창출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이상직 회장은 “중증장애인 생산물 소비가 확대된다면, 이는 곧 장애인 고용 창출과 사회 참여 확대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장애인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충북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식자재협의회는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 강화와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청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시공사 관계자들이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기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취약계층에 나눠주세요”

6개 시공사 축제 성공 기원

4000매 구매, 지역경제 보탬

청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공사들은 3일 2025년 청원생명축제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청주시에 축제 입장권 4000매를 기탁했다.

이날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개최된 기탁식에는 이법석 청주시장과 주식회사 라인건설·심우·삼풍·이삭·현광전업·드림네트웍스 등 6개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 대표 축제인 청원생명축제의 취지에 공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시공사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이뤄졌다.

시는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 기탁된 입장권을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 저소득 가정 등에 배부해 더 많은 시민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5년 청원생명축제는 9월 24일부터 10월 3일까지 10일간 오창을 미래지 농촌테마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시공사 측 관계자는 “현대화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 축제의 활기와 상생의 가치를 함께 나누고자 기탁을 결정했다”며 “안전하고 품질 높은 시공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이법석 시장은 “청주시의 주요

공공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시공사들이 지역 축제의 가치에 공감해 따뜻한 나눔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청원생명축제가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로 한 단계 더 도약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흥덕구 옥산면 오산리 606-8 일원에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새 도매시장은 부지면적 14만 8260㎡에 과일동, 채소동, 수산물, 관리동, 환경동 등 연면적 4만 5733㎡의 유통 시설을 갖춰 중부권 최고의 농산물 유통 중심지로 자리잡을 전망으로 준공은 2026년 11월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1816억원이 투입된다.

진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 작품전 11명 입상

유리공예 등 작품성 인정

문화 · 예술적 재능 펼쳐

진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김태우)는 12일 ‘제22회 충청북도 장애인 가족 작품전’에서 총 11명의 회원이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작품전은 장애인과 가족이 문화 · 예술적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으로 자존감과 성취감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날 청주예술의전당 1층에서 수상자와 가족, 센터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식전 공연, 개막식, 작품 관람과 소개, 시상식 등



제22회 충북도 장애인 가족 작품전에 입상한 진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들이 수상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진행됐다.

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들은 가족공예, 마크라메, 유리공예, 액자 제작, 코바늘 뜨개 등을 출품했으며 작품성과 창의력을 인정받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태우 센터장은 “회원들이 자

신의 재능을 작품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좋은 성과까지 거두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가족들이 예술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청원지역자활센터, “무엇이든 똑딱”

독거노인 · 1인가구 대상

생활 밀착형 서비스 제공

청원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경호)는 11일 ‘무엇이든 마을관리소’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무엇이든 마을관리소는 봉명1동 내 독거노인과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됐다.

간단한 집수리, 마을순찰, 생활 · 행정 정보 안내, 마을환경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의 일상 불편을 해소하고 촘촘한 지역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비스 제공은 센터 소속 자활 참여자들이 진행해, 지역 주민의 생활편의 개선과 동시에 취약계

층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무엇이든 마을관리소에서는 개소식과 함께 의류 나눔 ‘아나바다 장터’도 열려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무엇이든 마을관리소는 주민 누구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생활 안전망으로서 지역사회에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고 마을공동체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유관기관 정보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유복지플랫폼

‘충북복지넷’





사계절센터는 지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여름을 잇다'라는 주제로 2박 3일간의 여름 캠프를 영덕군 일원에서 진행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성공적인 모험이자 도전

'사계절센터 여름을 잇다' 2박 3일 여름캠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가능성 제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장애인과 가족의 삶 변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진 지난 7월, 충북의 한 복지기관에서 특별한 여름이 시작됐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충북지회 산하 '사계절센터'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1:1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곳은 '사계절센터 여름을 잇다'라는 주제로 2박 3일간의 여름 캠프를 경상북도 영덕군 부흥리 해수욕장 일대에서 열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과 낯선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큰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에게 이번 캠프는 단순한 여행을 넘어선 도전이자, 함께하는 이들에게는 소중한 성장의 시간이 되었다. <편집자주>

■ 바다로 향한 첫 발걸음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외출'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시각·촉각·청각 등 감각에 예민한 특성은 낯선 환경에서 극심한 불안을 일으키고, 자해·타해·강박적 행동과 같은 도전행동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가족들은 외출 자체를 꺼리게 되고, 결국 발달장애인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원치 않는 사회적 고립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2023년 실시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68%가 "외출 시 돌발 상황에 대한 불안으로 외부 활동을 제한한다"고 답했다. 이 한 가지 수치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일상의 제약과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렇게 외출조차 쉽지 않았던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이 이번에 바다로 향했다. 서핑과 해수욕, 스피드보트 체험, 수영장 이용, 지역 식당·카페 방문, 다중이용시설 체험까지. 이 일정 하나 하나는 단순히 무대위를 피하는 여름 피서가 아니라, 즐거움 체험활동을 매개로 사회와 소통하려는 의미 있는 시도였다. 여행지를 바닷가로 정한 것도 단순히 '여름=바다'라는 공식 때문만은 아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는 시각적 안정감을 주고, 부드러운 모래사장은 촉각적 자극을 완화해준다. 이러한 환경은 감각에 예민한 장애인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캠프가 진행되는 동안 우려와 달리 도전행동은 안정적으로 관리되었고, 참가자들은 점차 새로운 공간에 적응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이번 여름 캠프 '사계절센터 여름을 잇다'를 총괄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최경옥 충북지회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시행 1주년을 맞아 변화한 당사자들에게 새로운 환경을 제공할 적기와 판단했다"며 "장애인 당사자와 기관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이지만, 반드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획했다"고 말했다.

■ 1년간의 준비와 통합돌봄서비스

이번 캠프는 사계절센터가 지난 1년간 쏟아온 노력을 보여주는 장이기도 했다. 사회복지사들은 지난 1년 동안 최중증 발달장애인 한 명, 한 명의 특성을 면밀히 관찰하며,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도전행동이 나타나는지, 어떤 환경에서 안정감을 느끼는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 등을 세심하게 파악했다. 또한 여행지의 위험 요소와 활용 가능한 자원까지 꼼꼼히 점검하며, 안정적인 여행을 위해 4월부터 준비에 들어갔다.



왕복 6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수차례 오가며 시설의 계단 수까지 확인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이어졌다. 이렇게 완벽한 준비가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었기 때문이다.

통합돌봄서비스는 2024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제도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1:1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주간 그룹형, 개별형, 24시간 지원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기준 전국 2340명이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보호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캠프 기간 동안 전송된 자녀들의 밝은 사진과 동영상 보고 "감사합니다", "뜻깊은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라는 메시지가 이어졌다. 그동안 도전행동으로 인해 집 밖에서 오래 머무는 것조차 어려웠던 자녀들의 변화에 감동하는 부모도 많았다. 도전적 행동으로 태어나서 마트를 한 번 밖에 가보지 못한 장애인도, 낯선 사람을 보면 머리를 때리던 장애인도, 집 이외의 장소에서 잠을 자본 적 없는 장애인까지 모두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숙소에서 잠을 자고, 푸른 동해 바닷가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 모든 변화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결과였다.

2025년 5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통합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보호자 84%가 "자녀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바다 여행은 국내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고 있다.

부산 송도해수욕장에서 2025년 9월, 장애인을 위한 '수상 휠체어 체험 프로그램'이 열렸다. 평소 바다에 발을 담그는 것조차 어려웠던 참가자들은 직접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 생애 첫 해양 체험을 즐겼다. 한 참가자는 "태어나 처음으로 바다를 느꼈어요, 이게 꿈이 아닌가 싶었어요"라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해외에서도 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 모델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영국 NHS는 'Personalised Care' 모델을 통해 개별화된 지원계획과 지역사회 중심 돌봄을 제공하며,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Passport Program'을 통해 중증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전문 인력 부족, 지역 간 서비스 격차, 예산의 지속 가능성 등은 통합돌봄서비스가 안고 있는 현실적 문제다. 2024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에서는 "1:1 지원이 필요한 만큼 충분한 인력 확보가 어려워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 가능성을 보여준 여름 캠프

그럼에도 이번 캠프는 '최중증'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낙인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해수욕장 인근의 대중시설을 스스로 경험한 참가자들은 또 다른 자립의 가능성을 드러냈고, 이 행사를 준비한 사계절센터 사회복지사들은 "지난 1년간의 세월과 노력이 모두 보상받는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어떤 사회복지사는 마치 큰 발견이라도 한 듯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가 처음 와보는 리조트 방 안 침대에 편안히 누워서 바다를 보고 있어요", "우리 ○○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식당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또 한 가족은 "우리 아이가 태어나고 늘 망망대해에 홀로 있는 것 같았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이용한 지금, "지금보다 더 나은 꿈을 꿀 수 있다는 것"과 "아이가 점점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처럼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는 장애인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인에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임을 보여준다.

■ 바다를 건넌 용기

우리가 처음 자전거를 배웠던 순간을 떠올려보면, 넘어질 것이 두렵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막막해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면, 평생 패달을 밟으며 맞는 상쾌한 바람을 느껴볼 기회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손이 베일까 걱정하고, 위험하다며 과도를 손에 쥐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면, 평생 맛있는 사과를 직접 깎아 먹을 기회도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할 수 없다'는 생각과 '위험하다'는 우려 때문에 포기했다면, 사계절센터를 이용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이 뜨거운 여름 피약복 속에서 시원한 바닷물에 몸을 담그고, 파도가 밀어주는 튜브를 타보는 경험조차 평생 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 기회를 사계절센터를 이용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이 바다 여행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 수 있었다.

이번 여름 캠프는 단순히 바다를 보고 온 여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다를 건넌 용기였고,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만든 변화의 시작이었다. 또, 단순한 여행을 넘어,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다시 떠올리게 한 시간이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해주지 못했던 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번 참여형 돌봄 사업을 통해 현실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번 캠프는 단순한 경험에서 끝나지 않았다. 사계절센터의 여름 캠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출발의 신호탄이자, 사회가 관심과 지원을 통해 그들의 삶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도전을 이어간 참가자들의 모습은, 우리가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에 질문을 던진다. '최중증'이라는 표현이 더 이상 한계를 의미하지 않기를, '돌봄'이 단순한 보호가 아닌 성장의 발판이 되기를 바라며, 그 여정의 끝에, 바다를 건넌 용기처럼 더 많은 이들이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 인종문 사계절센터장

복지광장



인 종 문

충청북도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사계절센터장

“민수 씨, 오늘은 무얼 살 거예요?”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민수(가명, 35세) 씨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가 묻자, 민수 씨는 바구니를 들고 성큼성큼 음료가 진열된 냉장고로 향한다. 냉장고 문을 열어 캔 커피와 탄산음료를 담고, 소시지와 과자 몇 봉지를 더 바구니에 담아 계산대로 간다. 계산대 위에 골라 온 음료와 과자를 올려놓고 계산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그리고 점원이 계산을 마치자, 소시지 한 개는 사회복지사에게 건네고 나머지 간식은 메고 왔던 가방에 담아 넣는다.

편의점에서 만난 세상

도 낮선 사람을 거부하고 음료에 대한 높은 집착을 보였다. “절대로 마트는 데려가면 안 된다”라고 했던 어머니의 당부를 뒤로 하고 민수 씨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는 제공기관 인근에 사전 협의를 한 편의점으로 음료와 간식을 직접 사러 가기로 했다. 처음 편의점에 들어선 민수 씨는 진열된 상품들을 헤집어 놓을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놀라운 세상의 광경을 목격한 어린아이처럼 한참을 얼음이 되어 편의점 가운데에 서서 눈앞에 펼쳐진 음료와 과자들을 그저 바라만 볼 뿐이었다.

3개월간 꾸준히 상점을 이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매일 스스로 먹고 싶은 것을 살 수 있게 된 지금은, 소시지를 하나 더 집어 사회복지사에게 건네는 여유도 생겼다. 사회복지사의 꾸준한 개별 지원과 정서적 교감은 민수 씨에게, 어머니조차 포기했던 작은 기적을 가져왔다. 이제 민수 씨는 행인의 음료를 빼앗아 마시거나 길에 버려진 병에 담긴 정제 모를 액체를 마시는 일도 없다.

무엇보다 민수 씨의 어머니는 집에서 상상도 못 했던 일들을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고 난 뒤로 하나씩 이루어 가는 모습을 보며 “그저 감사하다”라고만 말한다.

2025년 6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최종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용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보호자의 평균 만족도는 93.8점, 이용자는 96.3점으로 매우 높았다. 이 서비스는 단순한 발달장애인 돌봄을 넘어 가족 전체의 삶의 질을 바꾸는 힘을 지닌다. 또한 어느 곳에서도 받아주지 않던 최종증 발달장애인을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초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프리카 속 담에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선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이는 아이가 사회 구성원과의 관계 속에서 배우고 성장한다는 의미를 강조하며, 지역사회 전체의 보살핌과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뜻이다. 최종증 발달장애인도 마찬가지다. 장애 당사자의 가족만 돌봄의 어려움을 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심과 지원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인식이 필요하다.

민수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좋아하는 캔 커피를 마시고 싶은 욕구에서 출발했지만, 그 욕구가 ‘도전적 행동’이라는 초점 때문에 세상과 단절되었다. 그러나 민수 씨와 그의 어머니가 만난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한 가정의 변화를 넘어 우리 사회의 변화를 보여준다. 앞으로 더 많은 민수 씨가 자신의 선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길 바란다.

복지칼럼

도민의 삶 담는 ‘충북영상자서전’ 이야기



조 경 옥

청주시랑나눔기초푸드뱅크 소장

충북인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있다. 충청북도민의 소소한 삶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공유하는 이 프로그램은, 현재 충청북도노인복지관과 충북문화재단에서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영상 촬영과 편집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충청북도노인복지관의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충북문화재단의 서포터즈 프로그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참여자는 소정의 활동 경비를 지원받으며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충북 영상자서전 사업’은 도민들의 인생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아 공유 플랫폼을 통해 함께 공감하고, 다음 세대에 계승하는 기록문화 사업이다.

충청북도는 전국 최초로 이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7월 1일 기준 구독자 수 5470명, 동영상 1만 4844편이 등록되어 도민들의 삶을 다양한 카테고리로 잘 정리해 제공하고 있다.

여러 카테고리 중 자신들을 드러내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영상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충청북도장애인복지관과 함께 180명의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영상으로 공유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고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이처럼 영상자서전 사업은 도민들의 큰 공감과 사랑 속에 점차 자리 잡아가고 있다.

또한, 향후에는 전문 촬영과 편집 교육을 통해 개인 유튜브와 시니어 유튜브를 양성하고, 시니어 유튜브들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새로운 뉴미디어 시대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약 30명이 영상자서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일자리 참여자 중 지용희님은 영상자서전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그는 도민들의 삶을 영상으로 기록하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담으며, 영상의 의미와 중요성을 열정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지용희님은 교육공무원으로 40년을

근무했고, 도민 홍보대사로 6년간 활동했다. 또한 개인적인 취미로 15명의 단원을 구성해 색소폰 앙상블을 운영하며, 주말에는 관객지를 찾아 거리 버스킹 활동도 하고 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각 영상에 QR 코드를 부여하여 먼 미래에도 자녀와 지인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용희님의 영상 촬영 과정은 이렇다. 영상자서전에 출연하고 싶은 도민을 만나 현재 직업, 어릴 적 꿈, 학창 시절의 추억, 잊지 못할 경험, 삶에서 어려웠던 일 등을 인터뷰하고, 준비된 사진과 함께 편집해 한 편의 영상을 완성한다. 완성된 영상은 먼저 인터뷰 주인공에게 전달하여 확인을 받고, 함께 검토하며 수정 과정을 거친 후 충청북도청에서 관리하는 영상자서전에 등록된다. 영상을 찍기 위해 여러 도민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들의 다양한 각자의 삶이 모여 가정을 이루고 나아가 지역과 도민을 구성하는 역할이 모두 두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용희님은 영상자서전 참여를 통해 노년의 무료한 삶에서 벗어나, 꿈과 희망이 있는 삶을 매일 즐겁게 살아가고 있다고 전한다. 그는 “영상에 관심 있는 도민과 시니어의 적극적인 참여가 새로운 뉴미디어 시대를 열어 갈 것”이라고 말한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중 영상에 관심이 있으신 충북도민 누구나 충청북도노인복지관과 충북문화재단에 전화를 하시면 문의를 하고 좋은 영상과 사회에 귀감이 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여 취미생활은 물론 영상 작가로서의 기술 습득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이 가을 결혼을 하는 부부가 있다면 자신의 결혼 스토리를 아름답게 편집을 하여 함께 올려보는 것도 바람직 할 것으로 본다.

현재는 충북도민의 이야기 전용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운영 중이며, 연애, 결혼 스토리를 공모하는 등 도민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상자서전 사업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도민들의 삶을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는 소중한 매개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향후 충청북도는 충북영상자서전을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며 전국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

영상자서전의 취지는 참여자 자신의 이야기를 남기고,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며 삶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금 느끼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경험은 세대 간, 지역 간 소통을 촉진하고, 충북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결속을 더욱 단단히 하는 밑거름이 된다. 영상자서전이 만들어 가는 작은 기록 하나하나가 모여, 충북도민 모두가 자신의 삶을 자랑스럽게 돌아보고, 미래 세대에게 이어줄 소중한 문화유산이 되길 기대해 본다.

현장의 목소리



서 현 주

청주시장애인단기돌봄센터 팀장

나는 지난 20년간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 살아왔다.

처음에는 돌봄을 단순히 하나의 업무이자 책임으로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연결임을 깨닫게 되었다.

현재는 청주시장애인단기돌봄센터(이하 단봄)에서 관리자로 근무하며, 동료들과 이용자 한 분, 한 분의 하루를 함께 살아가고 있다.

단봄은 청주시에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누구든 보호자의 부재로 인해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올여름 단봄은 쉼 없는 시간을 보냈다. 많은 이들이 휴가를 떠나는 7월과 8월, 특수학교와 복지관 등의 방학이 겹치면서 이용자가 정원을 훌쩍 넘어섰다. 이는 단순히 일이 많아진다는 뜻이 아니라, 각기 다른 특성과 필요를 지닌 이들을 안전하게 돌보기 위해 그만큼 더 세심한 배려와 노력이 요구된다는 의미였다.

보호자들은 출근으로 인해 돌봄 공백을 피할 수 없었고, 단봄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공간이 되었다. 교사들은 스스로 여름휴가를 뒤로 미루며, 단 한 명의 인력이 현장에 있다는 사실이 곧 이용자의 안전을 지키고 가족에게는 안심과 여유를 선물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단순한 직무를 넘어 누군가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된다는 것을 교사들은 몸소 느끼고 있었다.

나 또한 아이들을 키우며 회사를 다녔던 시절,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려 본다. 아이가 아픈데도 출근을 해야 했을 때, 코로나로 인해 장기간 등교하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했을 때, 그리고 매년 어김없이 찾아오는 여름과 겨울 방학은 늘 큰 과제였다.

아이들만 두고 출근해야 했던 순간마다 미안함이 뒤따랐고, 혹시 모를 사

고를 걱정하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다. 그때 절실히 필요했던 것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누군가의 도움이었다.

바로 이것이 단봄이 이용자와 보호자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한다.

여름방학 동안 단봄은 단순한 보호의 공간을 넘어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미술, 음악, 요리, 신체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서 이용자들은 성취감을 맛보았고, 교사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힘든 순간 속에서도 보람을 느꼈다. 이용자들의 표정은 한층 밝아졌고, 보호자들은 안심하며 일터로 향할 수 있었다.

이 시간을 지나며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돌봄은 단순히 생활을 관리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이어주는 따뜻한 다리라는 사실을 말이다. 교사들의 헌신, 보호자들의 신뢰, 이용자들의 웃음이 모일 때 비로소 진정한 돌봄이 완성된다.

9월과 10월, 단봄 직원들은 늦은 여름휴가를 준비하고 있다. 비록 뒤늦은 휴식이지만 맑고 웃음으로 채운 여름을 돌아보며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이다. 그리고 곧 다가올 겨울방학에도 단봄은 다시 이용자들의 웃음과 가족들의 안심 속에서 새로운 보람을 맞이할 것이다.

나는 이 일을 하며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돌봄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의무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완성된다는 것.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사람이 성장하고 치유된다는 사실이다.

한 보호자께서 전해주시 말씀이 지금도 깊이 남아 있다.

“단봄이 있어 친구와 마시는 차 한 잔의 휴식으로 다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해주어 감사합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다. 이는 장애를 가진 가족이 감내해야 하는 고됨과 아픔을 담은 말씀이자, 동시에 우리의 작은 역할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 순간이었다. 그 말 속에서 우리 역할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했고, 직업에 대한 자긍심도 되새길 수 있었다.

앞으로도 단봄은 이용자와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작은 역할을 이어갈 것이다. 돌봄의 본질을 잊지 않고, 함께하는 일상의 소중함을 지켜내며, 따뜻한 연결을 이어가려 한다. 그것이 내가 이 길을 20년 동안 걸어온 이유이자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단봄의 여름은 끝났지만, 돌봄의 길은 계속된다. 이 길을 함께 걸어온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늦은 휴가가 따뜻한 보상이 되기를 바란다.

똑똑똑! 법률홍닥터입니다.

취약계층 법률 상담 서비스 법률홍닥터



법률홍닥터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



지원내용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시 간 월~금 10:00~17:00(공휴일 제외)
전 화 043-238-0843
사무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2호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

채권·채무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이혼·친권·양육권 생활법률 전반



이 달의 법률상식



신인경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과)

Q. 저는 작년에 인근 공장(상시 5인 이상 근로)에 취업하게 되어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공장 사정이 좋지 않다며 일주일에 2번만 근무하고, 임금 역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한 시급으로 감축될 거라는 사업주의 통보를 받았습니

A. 우선 일주일에 2번만 근무한다고 하여 임금 역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한 시급으로 감축된다는 사업주의 통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휴업수당과 체불임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사용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으며 불가항력 이외의 경영장애사유까지 포함하여 넓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 불황 등 경영난으로 인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경영난으로 인해 근로를 하지 못하는 날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우선 사업주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면 당해 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고, 이외에도 민사절

차에 의해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는데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한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가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청구를 하여 민사상 소멸시효를 중단할 필요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인사동정

- 제천종합사회복지관
- ▷ 관장 조원형 / 9월 1일자

인사동정 이용 안내

●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사이동(기관장 변경, 법인 내 이동 등)에 대해 게재를 원하시는 사실은 문의 바랍니다.
※043-234-0840 김세나 사회복지사

복지정보 제공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제공 서비스' 신청 안내]

- 신청대상: 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 종사자
- 발송내용: 도내 사회복지 행사 안내 및 유관 기관 공모사업 제공
- 발송횟수: 주 3회
- 신청기간: 상시접수
- 신청방법: '충북복지넷' 홈페이지(www.043w.or.kr) 팝업창 참고

[충북사회복지협의회, 2025년도 유니버설디자인체 협센터 교육 신청 안내]

- 진행일시: ~12월 31일 (상시 신청가능)
- 진행장소: 유니버설디자인체협센터(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1층)
- 진행대상: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등 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 근무자 및 이용자 ※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하여 신청 인원은 회차당 20명 이내로 가능함
- 주요내용: 유니버설디자인(UD) 이론 교육, 유디체험관 및 주택체험관 견학
- 신청방법: 전화 접수(T. 043)234-0840~2) ※ 담당자와 일정 조율 후 신청서 제출
- 참고: www.043w.or.kr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최종중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서비스 안내]

- 사업내용: 도전행동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가 이용이 힘든 발달장애인에게 욕구 및 지원필요도에 따라 당사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및 원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주요서비스 및 제공시간
- 24시간 개별 1:1 지원(주중 낮활동과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돌봄서비스)
- 주간 개별 1:1 지원(이용자 특성에 맞는 1:1 개인별 맞춤형 낮활동 서비스)
- 주간 그룹 1:1 지원(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사용하는 1:1 그룹형 낮활동 서비스)
- 서비스내용: 도전행동지원, 일상생활훈련, 자립생활, 취미활동 등
-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T. 043)716-2168~9)

[바보의나눔, 2025년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긴급한 사회적 위험에 처해있는 실질적 여성가장(신청기관에서 1개월 이상 사례관리, 가정 방문중이거나 향후 신청기관의 사례관리 과정에 동의한 개인)
- 지원예산: 1인당 최대 400만원

- 지원분야: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내용
- 신청기간: 신청월 5일 18시 이후 ~ 익월 5일 18시(12월 5일까지 매월 접수)
- 사업기간: 신청월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가능한 단체(사회복지기관,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제출 서류 구비 및 온라인 접수
- 참고: babo.or.kr

[조목우산, 2025 '한국앤컴퍼니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조목우산' 차량나눔사업 공모]

- 지원대상: 전국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운영 주체가 단체 또는 협회인 경우 직접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은 신청 가능
- 지원내용: 현대 스타리아 승합차(총 15대)
- 신청기간: ~2025. 10. 10.(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네이퍼폼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참고: www.childfund.or.kr

[김대일문화재단, 나들이 지원사업 참여기관 모집]

- 신청요건: 아동양육/보호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보육원, 그룹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청소년 쉼터 등 지원대상자 거주 및 생활시설)
- 지원대상: 해당 시설 이용자 및 관계자
- 지원내용: 나들이 프로그램 진행 비용(최대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신청기간: ~2025년 10월(상시모집)
- 신청방법: 신청서 등 구비서류 작성 및 이메일 제출
- 참고: www.kdcf.or.kr

[밀알복지재단, 2025 시청각장애아동을 위한 의료소모품 지원]

- 모집대상: 만 18세 미만 시청각장애아동, 차지·어려증후군 아동
- 모집기간: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범위: 최대 40만원
- 신청방법: 구급품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참고: www.miral.org

[라이프오브더칠드런, (강원·충청·세종·제주 지역)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지원대상: 국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가정 아동, 다문화 및 이주노동자 가정 아동, 한부모 가정 아동, 그 외 소외계층 아동
- 지원자격: 현재 타 단체의 지원을 받지 않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중위소득 75% 이하 가정 아동, 협력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기관 추천을 받은 아동) * 개인 신청 불가

- 지원내용: 교육비 월 10만원 씩 1년, 최대 3년 지원, 수능 교과과정 및 예체능 관련 교육기관 비용지원(온라인 수강료 가능), 직업능력 개발 관련 기관 비용 및 특수교육 비용 지원
- 접수기간: 상시(예산 소진 시 종료)
- 접수방법: 구비서류 이메일 제출
- 참고: lifeofthechildren.org

[우리금융미래재단, 위비프렌즈와 함께하는 위비랑돌잔치]

- 사업대상: 전국 아동양육시설 내 만 1세 생일을 맞이하는 아동(2024년 1~12월생)
- 지원인원: 총 50명
- 지원분야: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내용
- 사업기간: 2025년 4~12월 (총 9개월)
- 지원내용: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지원금 100만원), 찾아가는 돌잔치 지원, 간식비 지급, 선물키트 제공
- 신청기간: 사업 기간 내 상시 모집
- 신청방법: 구급품으로 신청서 제출
- 참고: www.woorifuturefoundation.or.kr

[김대일문화재단, 2025 나들이 지원사업 [놀이·하대] 참여기관 모집 안내]

- 신청요건: 아동양육/보호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 보육원, 그룹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청소년 쉼터 등 지원대상자 거주 및 생활시설 - 사업비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필수
- 지원대상: 해당 시설 이용자 및 관계자
- 신청기관에서 생활 중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
- 신청기관에서 근무 중인 관계자 및 인솔자
- 신청기간: 2025년 3월~10월 중 상시 모집
- 지원내용: 나들이 프로그램 진행 비용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1박2일 또는 2박3일 나들이 프로그램 진행 가능)
- 참고: www.kdcf.or.kr

[월드휴먼브리지, 2025 취약계층 양육부모 심리상담 지원사업]

- 지원대상: ①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며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무 또는 산전우울증 임신부, ②전문가 소견에 따라 상담 개입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
- 지원내용: 인당 최대 200만원의 심리 상담료 지원(상담 회차에 따라 매월 분할 지원)
- 신청방법: 전국 사회복지시설 및 유관기관에서 구비서류 이메일 제출(개인 신청 불가)
- 신청기간: ~2025. 11. 30.(일) 예산 소진 시 조기

자원 봉사자 모집

▶ **충북사회복지신문 우편발송 작업**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10.1 ~ 10.31
전화번호: 043-234-0840

▶ **행정업무·스마트상담소 운영**
관리센터: 청주시경노인복지관
활동기간: 10.1 ~ 10.31
전화번호: 043-236-0111

▶ **어르신 산책·발벗**
관리센터: 충주시립노인요양원
활동기간: 10.1 ~ 10.31
전화번호: 043-851-3211

▶ **병원 내원자 안내·문진표 작성**
관리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활동기간: 10.1 ~ 10.31
전화번호: 043-270-5931

▶ **시설 업무 보조**
관리센터: 해피하우스다솜
활동기간: 10.1 ~ 10.31
전화번호: 043-856-4001

▶ **학습멘토링 멘토**
관리센터: 청주시사회복지관
활동기간: 10.1 ~ 10.31
전화번호: 043-253-4493

▶ **어르신 식사 배달**
관리센터: 오송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10.1 ~ 10.31
전화번호: 043-234-5479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연중
전화번호: 043-234-0840~2

*자료출처: www.vms.or.kr

지역사회봉사단

나우리회·스마일봉사단 폭염예방키트 전달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응모) 소속 '나우리회(단장 심재훈)' 및 '스마일봉사단(단장 최용순)'은 지난 4일 충북광역푸드뱅크 물류센터에서 2025 우리충북 희망여름

착착착! 폭서기 지원 키트 제작 행사에 참여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진행되어, 13가지 방방용품 및 생필품 등으로

구성된 물품꾸러미를 제작해 도내 기초푸드뱅크를 통해 저소득 가정 350가구에 전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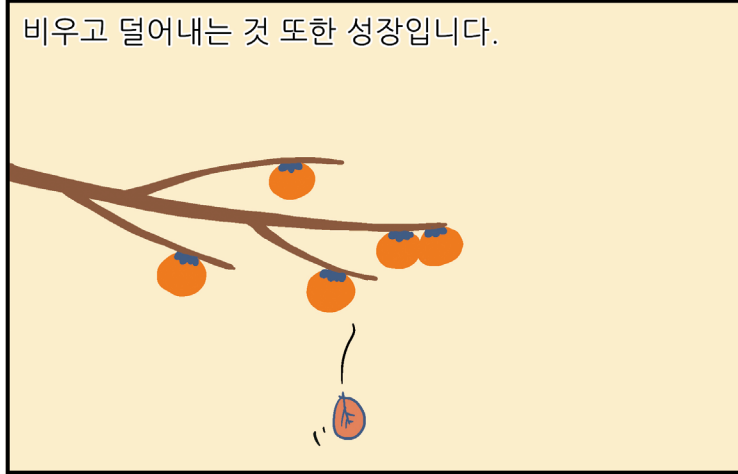
나우리회와 '스마일봉사단'은 각각 2010년, 2014년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촉되어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위해 다양한 사회복지 자원봉사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입되어 있는 2인 이상 자원봉사자로 기술 및 재능을 가지고 있는 단체인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활동 혜택으로는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의 맞춤형 봉사활동 연계, 봉사활동 활동재료 지원, VMS 봉사실적 관리, 우수봉사단 표창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복/지/만/평

성장

이창신 www.bokmani.com



늘려야 할 때와 줄여야 할 때를 알아야 합니다.

